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49호 【루계 제26123호】 주체107(2018)년 9월 6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조선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5일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그들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사로 매우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을 이렇듯 빨리 따뜻이 맞아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석상에서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온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대통령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굳센 의지를 피력한 흉금을 터놓은 친서를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시며 대통령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자신께서도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기대를 잊지 않고 힘껏 노력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줄 결심에 변함이 없다는것과 이 기회를 빌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함께 고심하고 모색하며 기울인 진지한 노력과 과감한 결단들에 의하여 올해에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합의들을 이룩함으로써 오랜 세월 이그러졌던 비극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의의있는 획기적인 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하여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조미수뇌상봉을 위해 문재인대통령이 바친 성심과 로고를 높이 평가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이후 북남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훌륭한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였으며 북남군사회담과 공동련락사무소개설사업이 잘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이 모든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사대표단일행과 9월중 예정되여있는 평양수뇌상봉과 관련한 일정과 의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고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또한 북남관계를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의지를 거듭 확약하시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대표단사이의 담화는 동포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5일 외무상 리용호동지에게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호마드 무함마드 하쌉 칼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인민무력상 록군대장 노광철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알력쎄이 바르투쏘브 로씨야련방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서져있었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정제 및 무역참사단이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주조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이 5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모서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국가건설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업적 길이 빛날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경축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아랍지역준비위원회가 8월 12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에짚트자유사회주의당 부위원장 아호야 자카리야 헤이룰라, 조선통일지지 페바논위원회 위원장 자헤르 알 하리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정축기간에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8월 13일 우간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마얌발라 로젠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8월 14일 스웨리에의 스톡홀름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쿠웨이트준비위원회가 8월 14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쿠웨이트 타임스신문사 행정국장인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 자위드 아호마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자주적인 국가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과 그이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8월 20일 도이췰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조 책임자 만프레드 슈나이데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에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캄보쟈준비위원회가 8월 24일에 결성되였다.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의 위임에 따라 왕궁담당 부수상 꽁 쌈올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스리랑카준비위원회가 8월 25일 콜롬보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라티프 위제라트나세카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경축기간에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최세의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화국과 더불어 무궁토록 전해가리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국호, 국기, 국장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우리 조국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년륜으로 아로새겨질 공화국창건 70돐의 력사적순간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

맞이할 영광의 시각을 그려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격정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소중히 새겨본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와 국장.

존엄높은 우리의 국호, 국기, 국장에는 정녕 얼마나 숭고한 뜻과 성스러운 리념이 담겨져있는것인가.

깊은 감회속에 못 잊을 추억의 갈피가 숭엄히 더듬어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은 우리 민족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우리 조국의 국호, 국기, 국장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새 조국건설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성격과 참다운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 그리고 우리 나라 혁명의 근본목적과 당면임무에 기초하시여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하지만 국호제정사업은 종파사대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가 제시되였을 때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선이라는 말아래 무슨 글자가 아홉자씩이나 달렸는가. 국호가 너무 길다.》,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라고 떠벌이면서 이를 반대해나섰다.

그러던 주체37(1948)년 7월초 어느날이였다.

국호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홉자라named 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엄하게 지적하시고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인민들이 요구하는 국호를 제정하면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우리 인민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다, 원리적으로 보나 력사적으로 보나 우리 나라의 국호는 독창적인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 가장 정당한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한달후였다.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과 관련하여 국호문제와 국기, 국장제정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국호문제가 토의되였는데 우리 나라의 국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정치로선에서 이미 명시하신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할데 대한 안이 제기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절대다수는 그안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런데 이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상정된 국호에 대한 안에서 《인민》을 빼자고 하면서 《인민》이라는것을 넣으면 통일전선에 지장을 준다고 하였다.

또 어떤자는 어차피 우리는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것만큼 과도적 표현인 《민주주의》라는것을 넣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이곳저곳에서 술렁대며 그자들의 말에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론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호를 하나 정하는데 있어서도 심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국호에서 《인민》을 빼자고 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그릇된 주장입니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의 극우익반동들이 주장하는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뿐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비호하고 그를 따르려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를 빼자는 주장 역시 위험한 전해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 단계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조건에서 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을 무시한데서 나오는 매우 그릇된 주장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잠시 좌중을 둘러보시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국호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근본목적과 당면임무를 다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당면하게는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현실과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와 혁명의 근본목적을 고려하여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명철하고 론리정연한 말씀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더는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못하고 머리를 수그리고야말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부름속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이 어려와 회의참가자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회의에서는 이어 국기와 국장의 도안문제가 심의되였다.

국기와 국장도안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제시하신것이였다.

미술가들이 국장의 도안방향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고있을 때에는 친히 현장에 나오시여 도안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주체37(1948)년 1월 어느 날이였다.

깊은 밤에 미술가들이 도안하고있는 현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도안이라기보다 착상이 떠오르는대로 그린데 불과한 국장도안을 보시다가 벼이삭테두리에 시선을 멈추시고 그려놓은 벼알수를 손수 가늠해보신 다음 장차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벼알을 더 많이, 더 람스럼게 그려넣어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벼이삭테두리안에 그린 용광로를 유심히 보시며 용광로도 공업발전의 전망을 표현하는것이기는 하지만 공업의 한 부분을 반영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장에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과 함께 강력한 현대적인 공업과 선진적농업의 발전전망이 뚜렷하게 표현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장뿐아니라 국기도안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해 2월 초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장, 국기도안가들을 찾으시고 국기의 도안정형을 료해하고나시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국기에 흰것과 푸른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기의 바탕을 다 붉은색으로 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잘 맞지 않습니다. 수천년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있는 단일한 민족이라는것을 상징하는 흰색은 지금의 도안보다 좀 가늘면서도 선명하게 하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하는 푸른색 역시 지금보다 가늘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흰 동그라미는 지금처럼 중간에 놓지 말고 기발 대폭옆으로 놓으며 흰 동그라미안에는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그려넣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끊임없이 번영하는 조선의 미래를 상징하는 별!

도안가들의 눈앞에는 금시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가 눈앞에 펼쳐져보이고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영원무궁토록 번영하는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이 현실로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도안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창작적고민에서 깨여나 단숨에 붓을 들고 그려나갔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 5월에 국기와 국장초안을 신문에 발표하여 전조선인민의 토의에 붙이게 되였다.

국기와 국장초안이 신문에 나가자 종파분자들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또다시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발악하여나섰다.

어느날 당과 국가의 요직에 있던 한 종파분자는 미술가들을 불러다놓고 신문에 낸 국기와 국장도안에는 《조선적인 특성이 없다.》느니, 《대중들로부터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있다.》느니 하면서 국장의 테두리를 타원형으로 할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그리라고 하였으며 벼이삭도 그려넣지 말라고 강요하였다. 지어 국장안에는 용광로대신에 조선봉건왕조시대의 왕궁인 경복궁을 그려넣으며 국기의 동그라미안에는 오각별대신 보습을 그려넣으라고 뇌까리는것이였다.

이것은 실로 터무니없는 망발이였다.

미술가들이 국장도안에 그린 용광로를 다른 그림으로 바꾸지 못한채 심의에 제출했을 때였다.

국장도안을 찬찬히 살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전에도 말하였지만 국장에는 우리 나라의 발전전망이 잘 반영되여야 한다고, 물론 용광로를 그린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나라의 발전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였다고는 볼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장차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된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되려면 기술발전의 방향을 보여주는 전기화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미술가들의 눈앞에는 새롭게 그려질 국장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그 국장에 담겨진 우리 조국의 휘황한 앞날이 현실로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그후 미술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속에 수력발전소를 그려넣은 국장을 훌륭히 완성하게 되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국장도안에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기발하게 착상된 공화국국장속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업적도 깃들어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공화국창건을 앞두고 새로 만든 국기와 국장도안을 심의하기 전날 밤까지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장도안을 책상우에 펴놓으시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이 념려되시여 이제는 밤도 꽤 깊었는데 오늘은 이만 주무셔야 되지 않겠는가고 말씀드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매일 심의하게 될 국장의 도안이 채 완성되지 못했는데 자리에 누워야 잠이 제대로 올것 같지 않다고 하시며 국장도안에 전기화를 반영하여야 하겠는데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그런다고 하시였다.

국장도안을 펼쳐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발전소를 그려넣으면 전기화를 반영할수 있을것 같다고 말씀올리시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옳소! 발전소, 우리 나라 수풍발전소를 넣는것이 좋겠소라고 하시며 도안에 연필로 그 모형을 표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국호와 국기, 국장은 이렇게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국호를 만방에 빛내여주시며 국기, 국장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영원히 빛내어나가도록 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과 국장법을 제정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벰바루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그이께서 제시여 우리 조국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며 불패의 강국으로 더 높이 솟구쳐오르고있다.

최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스러운 우리 조국의 끊임없는 승리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의 국호, 국기, 국장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후손만대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주며 무궁토록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수기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절세의 위인들을 위대한 어버이로 모시고 그 품속에서 크나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온 우리 인민의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우리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연혁사야말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이룩된 기상한 전변의 력사이며 정녕한 근로자들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당의 뜻을 받들어 위훈을 창조할줄 아는 선구자들로 자라난 인간육성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으시였던 주체98(2009)년 1월 15일을 돌이켜볼 때면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겁게 달아오르군 한다.

대소한계절의 그날은 몹시도 떨렸다.

이날 나는 혁명사적교양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였다.

그리고보니 주체51(1962)년 1월 한겨울의 찬바람을 맞으며 찾아오시여 공장이전까지 잠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목이 메여왔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 이렇게 추운 날에 공장을 찾아주시였으니 인민을 위한 길에 끝없이 새겨가시는 절세위인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어려왔다.

내가 이런 심정을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날씨도 가리지 않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음성에 나의 가슴은 한없이 달아올랐다.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고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는 험한 생산현장을 찾으시였고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몸소 공장에 나오시여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그 나날에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끝없는 로고의 자욱을 더듬으시는듯, 키여이 수령님의 그 념원을 실현해드릴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듯 위대한 장군님의 눈빛은 승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감회깊이 바라보시다가 5호실에 1947년 4월 12일 이 공장에 찾아오시였던 어머님의 사진이 있는데 그때 자신께서도 어머님과 함께 왔던 일이 있다고 수십년전의 일을 추억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정양제사공장(당시)에 지난해초에 와보려고 하다가 바쁜 일이 제기되여 오지 못하고 오늘 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체취가 력력히 어리여있는 평양제사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습니다.

불덩이를 안은듯 가슴이 뜨겁게 끓어오르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잘대적으로 믿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치신 수령님의 높은 뜻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고 하시며 정양제사공장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해입히시려면 수령님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질좋은 명주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견직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그 순간 색이 바랜 장군님의 야전솜옷이 다시 눈에 안겨들면서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아 나는 머리를 수그리였다.

이 땅에 충정의 피를 끓이는 수천만 아들딸들이 있고 나라에서 생산한 비단천을 쌓으면 하늘에 닿으련만 포근한 솜옷 한벌마저 마다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날 나는 앞으로 비단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비단천이 많이 차례지게 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속소원을 아뢰였다.

우리 공장의 정문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라는 영광의 글발이 빛나고있다.

그 글발 한자한자에 담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 크나큰 기대는 오늘도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고동치게 해주고있다.

영광의 그날을 되새겨볼 때마다 나는 공장의 혁명일군으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산의 봉음을 더 높이 울려갈 불같은 의지를 굳게 가다듬군 한다.

두해전 6월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사적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만 새겨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생애를 잘 알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으시며 지난해 1월 또다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여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면서 대해같은 믿음과 온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진정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를 떠나 온 나라에 이름높은 자랑스러운 오늘을 생각할수 없는 우리 공장이다.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심장마다에 안고 충정과 보답의 한길을 뚜벅뚜벅 이어가려는것이 우리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지배인 김 명 환

최룡해동지

가금공장들을 현지료해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만경대닭공장과 927닭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영예감을 안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최룡해동지는 만경대닭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더 많은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헌신적투쟁을 벌리고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고무해주었다.

927닭공장의 실태를 료해하면서 최룡해동지는 고기와 알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가금업부문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가금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최룡해동지 만경대닭공장 현지료해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증산군식료공장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친국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현장에서 한 일군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동깊이 해설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공화국창건 70돐을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로농통신원 조 정 호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이룩된 경제건설대진군성과

전국각지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수많은 재부 창조, 1 240여개 단위 년간 인민경제계획 완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이룩한 로력적성과를 안고 9월의 경축광장에 들어서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으며 전국의 1 240여개 단위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사회주의승리자들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이 로력적성과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하며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발전잠재력을 뚜렷이 증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환적리정표를 마련해주시고 불철주야의 폭염강행군, 철야강행군으로 온 나라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신 천출위인의 특출한 령도는 대비약적혁신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였다.

당의 웅대한 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안고 창조와 증산의 회오리를 힘차게 올리고있다.

자립경제의 위력을 떨치는 창조물들이 련이어 솟아났다.

당정책관철에서 제일먼저 기치를 들고나가는 강원도인민들이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현대적인 강원도양묘장을 전국의 본보기로 멋들어지게 일떠세웠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은 당정책관철은 그 누가 대신해줄수 없으며 자기가 살아나갈 길은 기어이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철리를 다시금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장엄한 경제건설대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산소전로를 일떠세우고 인발강관생산공정을 현대화하였다.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해 위훈의 구슬땀을 바쳐온 건설자들의 고집한 충정과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어랑천5호발전소가 훌륭히 완공됨으로써 함경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단천마그네샤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투철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대결정전기용융산화마그네시움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중요공업부문의 단위들에서 울리는 주체화의 포성은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였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을수 있게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고 현대적인 설비들의 국산화비중이 92%이상 보장되였으며 핵심공정들이 원격조종화, 자동화됨으로써 나라의 려객운수부문을 발전시킬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속에서 많은 재부들도 마련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강냉이가공품들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강원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에서는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공장, 분공장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지방공업성과 수도건설위원회, 평강고기가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년간 수백t의 소젖가루를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새로 건설하였다.

백두고원지대에 무진장한 부사를 원료로 하는 우리 식의 특색있는 마감건재생산기지인 무봉부사마감건재중간공장이 일떠섰고 평양시에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미림색기와공장이 종합적인 기와생산기지로 완공되였다.

신의주시 서하협동농장, 원산시 송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준공되고 북청군에 400여정보의 과수밭이 조성되였으며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가 건설되였다.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와 린산메기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양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밑천이 든든히 마련되였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만능어선인 쌍선체고기배를 무어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최상의 봉사조건을 그쯘히 갖춘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로 멋들어지게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증산의 동음을 힘있게 울리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증산돌격운동의 기관차, 견인기가 되여 비약과 혁신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애국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여 대규모광물생산기지로 일떠세워주신 12월5일청년광산의 로동계급은 다광채굴, 다광락광, 다광처리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광물증산의 승전포성으로 영광의 혁명사적단위의 영예를 빛내였다.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는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과감한 증산돌격전을 벌려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원산제염소의 로동계급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드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여갈 일념으로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비장한 각오를 안고 달라붙어 년간 소금생산계획을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평양기관차대, 만경대애국농창공장, 해주련길농기계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령도업적단위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온 평양양말공장, 평양가방공장, 평양피복공장,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 만포방사공장, 대동강식료공장, 룡성고기가공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 등의 로동계급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락랑, 원산, 청진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생산자들은 병사시절처럼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충정의 길을 변함없이 걸으며 각종 수지용품들을 펑펑 생산해냄으로써 당정책관철에서 앞장서고있다.

령도업적단위들에서 타오른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은 만능의 백과전서인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지니고 달라붙을 때 점령 못할 요새,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추진기가 되여 용을 쓰며 나가는 령도업적단위들을 따라잡고 따라앞서기 위한 맹렬한 추격전이 힘있게 벌어져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계획완수단위의 영예를 떨치였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영예군인탄부장식품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장산전기공장, 평양연마석공장, 오석산화강석광산, 룡강석재광산, 평양건재공장, 평양칠감공장 등 선행부문, 중요부문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중요한 기업전략으로 내세우고있는 자동차운수관리국, 은성경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륙해운, 림업부문의 단위들이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렸다.

문천, 라남, 평천, 신성식료공장, 동평양, 신성피복공장, 평양학용품공장, 평천일용필수품공장 등 경공업부문의 많은 단위들도 년간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헌신의 발걸음따라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경제건설대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이고 주체조선의 절대불변의 전진방식이라는것을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필승의 신심에 넘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 남김없이 떨친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이 청년돌격대활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시대 영웅청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는 그 어디나 청춘의 열정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 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청년판으로 흥성거리게 하고있다.

평안남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청년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탄광들에 있는 청년돌격대들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청년돌격대원들이 누구나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명대탄광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도안의 청년돌격대들가운데서 20여개의 단위들이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동평양경기장개건보수공사와 시축구학교건설을 청년들이 맡아 완공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공사에 필요한 많은 세멘트와 골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수천㎥의 관람석기초굴착과 콩크리트타입을 성과적으로 해제낄수 있게 하였다.

강원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청년돌격대가 맡은 고성군민발전소 수천m구간의 물길굴진을 빠른 시일안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많은 소공구와 자재, 후방물자들을 건설장에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에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 김광철청년돌격대에서는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앞선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보다 발파효률을 훨씬 높이는 한편 부족되는 동발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려 지난 8월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수만t능력의 새 막장을 마련하였다.

청진철도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절을 맞으며 6천여정의 무볼트식콩크리트침목을 청년돌격대활동으로 생산할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청년들이 철근압연기도 개조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어 침목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공장의 많은 청년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또한 청년들이 청년과학기술행군에 적극 참가하여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고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데서 기수가 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청년과학자들은 산소-무연미분탄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을 완성하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보이라에 도입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청년과학자들은 바다물농축용 소금이온교환막을 연구개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청년과학자들은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청년들은 기술혁신청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세멘트부가물의 미분도를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세멘트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은천수산사업소의 기술혁신청년돌격대원들은 현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 물고기하륙작업의 현대화와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함경북도청년동맹위원회, 황해남도청년동맹위원회, 남포시청년동맹위원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의 많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청년들이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여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하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고무된 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새형의 20㎥ V형압축기 생산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얼마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새형의 20㎥ V형압축기를 제작하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과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압축기생산을 늘이고 종류도 늘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현대적인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을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중요대상설비생산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새형의 20㎥ V형압축기를 제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이미 10㎥ V형압축기생산공정을 꾸려놓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새형의 20㎥ V형압축기를 짧은 기간에 만들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10㎥ V형압축기에 쓰이는 부속품들을 그대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데 중심을 두고 20㎥ V형압축기제작전투에서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새형의 20㎥ V형압축기를 제작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룡성기계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제작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안에 설계를 완성하고 압축기를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선행공정인 소재보장을 담당한 선군주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종전보다 더 큰 본체와 크랑크축 등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실리있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소재보장을 철저히 앞세우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 의하여 새형의 압축기생산은 계획대로 추진되였다.

선군압축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압축기부분품가공 및 조립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소재의 크기가 더 커진 조건에서 이들은 지구장비를 새로 갖추어놓고 현존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완강한 전투를 벌려 빠른 시일내에 20㎥ V형압축기를 제작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이미 생산되여 탄광이나 광산들에서 리용하고있는 압축기들에서 나타난 사소한 부족점들까지도 극복하기 위한 사업과 새형의 20㎥ V형압축기제작을 밀접히 결부시켜 압축기를 부단히 갱신하였다.

2제관직장의 로동자들은 새형의 20㎥ V형압축기의 철정계통을 보다 새롭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피타는 탐구와 지칠줄 모르는 헌신에 의하여 새형의 20㎥ V형압축기제작전투는 한달 남짓한 기간에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제작된 새형의 20㎥ V형압축기는 이전에 생산하던 같은 능력의 압축기에 비해 무게와 부피가 훨씬 작은것은 물론 10㎥ V형압축기에 쓰이는 부속품을 거의 그대로 리용하게 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충정의 남과 말을 이어온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새형의 압축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지혁철

새로 무은 쌍선체고기배 진수식 진행

◎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새로 무어낸 쌍선체고기배를 진수하였다.

두채의 꼭같은 선체를 나란히 세우고 갑판을 일체화시키는 방식으로 건조한 쌍선체고기배는 어장진출과 어로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어로활동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물고기잡이량과 출어일수를 늘일수 있는 현대적인 만능어선이다.

진수식이 5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남포시위원회 위원장 강양모동지가 진수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쌍선체고기배의 진수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면서 고속쌍선체고기배를 건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업소에서 이룩한 성과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나라의 수산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나라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며 바다양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누구나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습득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선진적인 어로방법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사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물고기잡이와 배무이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쌍선체고기배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청진강재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여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자

근로단체들에서 경축모임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모임이 5일 근로단체들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모임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판계부문, 직맹, 농근맹일군들, 로동자들, 직맹원들과 태천군안의 농업근로자들, 농근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직맹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평양강철룡장 초급직맹위원장 리영남동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실장 강향미동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여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조국을 강력한 정치군사적지반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갖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혼함과 더불어 빛을 뿌리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또 한분의 선군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모든 직맹일군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강국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전절히 옹호고수하며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동맹인에 수령의 유혼판첼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직업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직업동맹,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업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총돌격, 총매진하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려혜정동지의 보고에 이어 평안북도농근맹위원회 위원장 최광남동지,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희정옥동지,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연구사 류원일동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년의 력사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대적귀감을 창조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것은 우리 인민에게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의 리전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이라고 열렬히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속에 이 땅우에 농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수십만 정보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번모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며 대규모의 과수바다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여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근맹조직들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야마다에 집단적혁신의 봉화가 타오르고 알곡증산의 승전고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알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중앙산업미술전시회 개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중앙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속에 창작된 국기와 국장도안, 국제친선전람관건축장식도안,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장식도안들을 비롯하여 1 900여점의 산업미술도안들과 그 실현품, 모형들이 부분별로 전시되여있다.

5일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동지와 내각부총리 리주오동지, 판계부문, 산업미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주오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년대의 갈피마다에 주체적산업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아로새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에만도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정양대동강수산물식당, 정양부궤도전차공장을 비롯한 10여개 대상과 판련한 290여점의 산업미술도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시회를 통하여 참관자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미술의 생활력과 천하제일강국으로 위용떨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애국의 마음을 바쳐 시대를 대표하는 명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미술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총련 본부위원장대표단 만경대 방문

김상일 교포부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본부위원장대표단이 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그들은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조국의 륭성번영과 민족단결의 북략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았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유서깊은 곳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신 사회주의조국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진정한 어미니품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며 총련의 본부조직들을 애국총정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레바논공화국 대통령대표 도착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레바논공화국 대통령대표인 밀레아 자보르가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해외연고자가족들, 외국손님들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범덕림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철, 리민, 리재덕가족일행들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원붕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서경 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범덕림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철, 리민, 리재덕가족일행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우리나라 대표단, 선수단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고 귀국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체육상 김일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체육성 부상 원길우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단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고 5일 귀국하였다.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였다.

지난 시기 국제경기들에서 세계적기량자로서의 실력을 과시하여온 엄윤철, 림정심, 림은심, 리성금, 김국향선수들은 이번에 또다시 남자력기 56kg급, 녀자력기 75kg급, 69kg급, 48kg급, 75kg이상급경기들에서 단연 1위를 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다.

오강철, 최천위, 김효심선수들도 남자력기 69kg급, 77kg급, 녀자력기 63kg급경기들에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권투경기에서 조효남, 방철미, 조선화선수들이, 남자 자유형레스링경기에서 강금성선수가, 녀자력기경기에서 최효심선수가, 녀자유술경기에서 김진아선수가, 남자 10m이동목표사격경기에서 박명원선수가, 기계체조 녀자 기계별결승경기 마루운동에서 김수정선수가 금메달들을 쟁취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락구녀자단체경기와 기계체조녀자단체경기, 동근형활쏘기 혼성단체경기에서 은메달들을 받았다.

녀자레스링 53kg급, 57kg급 경기에서 박영미, 정명숙선수들이, 남자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박명원선수가, 기계체조 녀자 기계별결승경기 평균대운동에서 김수정선수가, 물에뛰여들기 녀자 10m 고정관동시경기에서 김국향, 김미래선수들이 각각 2위를 하였다.

우리 선수들이 수중체조무용집체경기에서, 전창미, 번혜영, 김수정, 김선향, 림정심, 전명성, 김혜성, 최혜성, 림성심, 김미래, 천일명, 림금성, 김광희, 김미화선수들이 기계체조, 메스링, 력기, 마라손, 권투, 유술, 물에뛰여들기 녀자 10m고정관게인, 남자 10m고정관동시, 녀자 3m탄성관동시종목들에서 동메달들을 받았다.

한편 북남단일팀으로 출전한 선수들은 카누(룡배) 녀자 500m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으며 녀자롱구경기에서 2위를, 카누(룡배) 녀자 200m, 남자 1 000m경기에서 각각 3위를 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종목별협회 위원장들, 판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 감독들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어머니조국에 영예의 메달들을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총정의 보고를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선수들과 감독들은 주체체육발전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체육인들이 거둔 성과는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은혜로운 품속에서 꽃피는 재능

단천제련소의 한 로동자시인의 생활에서

단천제련소에는 이곳 로동계급으로부터 로동자시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청년이 있다. 그가 바로 조광철동무이다. 정법한 로동자인 그가 지난 기간 많은 시들을 창작한것을 두고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낼수 있는 일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갈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조광철동무는 어릴 때부터 우리 말 공부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런 그에게 선생님들은 새 그림책이 나오면 제일먼저 안겨주기도 하고 일기쓰는 법도 배워주면서 사심없는 진정을 기울였다.

조광철동무가 인민학교(당시)에 다니던 어느날 그의 집에 중학교문학소조 지도교원과 함경남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광철이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광철이는 천성적으로 문학적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그 말에 조광철동무의 부모는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에는 고마움에 눈굽을 적시였다.

아직은 철부지에 불과한 어린 자식의 재능을 귀중히 여겨 유명한 작가들까지 집에 찾아오는 꿈같은 현실.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의 지도속에 조광철동무는 11살에 벌써 100여편의 동요, 동시들을 창작할수 있었다. 문학적재능의 키가 한뼘두뼘 커갈수록 그는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가 창작한 시작품들을 보여드려 기쁨을 드리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6돐을 맞으며 글작품집 《나는야 해바라기》를 장군님께 올리였다. 그런데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광철동무가 삼가 올린 편지와 글작품집을 보아주실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작품창작을 활발히 벌리는 나날에 그는 《우리 교실》 문학상, 아동문학상수상자로 자라났다.

군사복무를 하면서도, 단천제련소에서 로동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작품창작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제련소당위원회에서는 그가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수 있도록 문학통신원으로 내세워주었다.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펴라고 해마다 문학통신원들의 강습까지 조직해주는 우리 당의 그 사랑속에 조광철동무는 헌신을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그는 올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이 축하의 인사를 할 때마다 그는 뜨거움에 젖어 말하군 하였다.

《저의 문학적재능을 찾아주고 꽃피워준 교마을 당의 품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오늘을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칠수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본사기자 정영철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린다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장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황해남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황해남도려단의 물길굴건설전투장에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려단에서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수백m구간의 물길굴건설을 결속하기 위한 전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 전투가 결속되면 청천강전역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물길굴이 생겨나게 된다. 여러 갱들에서 상부콩크리트피복공사를 끝내는 등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려단일군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이 맥박치는 작전과 지휘로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신 성과를 창조하기 위한 전투를 과감히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현재 려단이 점령해가고있는 목표는 대단히 아름찬것이다. 내세운 과업들은 공화국창건일이 지난 후에까지 수행하기로 계획했던것들이였다.

려단의 8월전투계획작성정형에 대해 료해하던 려단장과 정치부장은 여기에 주의를 돌리였다. 지난 기간 려단은 매달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달에는 9월의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더 큰 혁신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부터 관점을 바로가지도록 하였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계획수행으로 만족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니다.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는것이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부름이다.

일군들은 당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체현할 때 조국을 빛내이는데 기여할 비약적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분발하여 새로운 전투목표를 세웠다. 그리하여 려단에서는 종전계획보다 앞당겨 수백m구간에서 물길굴건설을 완성하며 다른 갱들에서 상부콩크리트피복공사를 끝내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게 되였다.

새 목표수행을 위해 더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자체로 해낼 방도를 찾기가 결코 쉬운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력갱생하는데 성과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파고들어 사색하여 실정에 맞는 방도들을 찾았다.

자재보장 특히 혼석준비를 선행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운것도 그중의 하나였다.

공사과정에 콩크리트치기를 많이 해야 하는것만큼 혼석준비를 잘하는것이 중요했다. 혼석은 강기슭에서 채취하여 운반해야 하였다. 만일 큰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면 혼석을 채취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그런 경우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자력갱생한다는것이 빈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런 립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여 굴착기와 자동차들의 만가동준비를 갖추고 혼석채취와 운반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갱들의 주변에 혼석더미들을 높이 쌓아놓게 되였다.

일군들은 대대들의 힘을 더 키워주는데도 주목을 돌리였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새 목표수행을 위한 기공구전시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전시회를 앞두고 이들은 대대들에 나가 돌격대원들에게 려단이 벌려야 할 거창한 전투와 그 수행방도에 대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한것이 전시회에서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돌격대원들이 집체적지혜를 합쳐 만든 기공구들을 내놓은 전시회에서 이채를 띠는것이 있었다. 설비수리에 필요한 기공구들이 전에 없이 많은것이였다.

사실 지난 시기 갱들에서 작업도중에 설비가 고장나면 주로 려단이 맡아 수리해주었다. 그런데 새 전투목표를 수행하는 때에도 사방 분산되여있는 10개의 갱들에서 그전처럼 설비수리를 려단에만 의존한다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만큼 실적을 올릴수 없었다. 이 사실이 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을 각성시키였다. 구태의연한 일본새로는 오늘의 전투성과를 담보할수 없다.

이로부터 그들은 웬만한 설비수리는 자체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공구들을 만들어 적극 리용하였다. 이런 혁신적인 일본새는 설비수리시간을 훨씬 줄이고 그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큰 효과를 나타내였다. 결국 대중의 기세가 더욱 앙양되여 대대들에서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실천을 통해 그 생활력이 확증된 기공구전시회를 한차례 더 조직하기로 하는 등 자력갱생의 불길을 계속 높이기 위한 사업에 품을 들이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으로 들끓는 현실은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면서 기수가 되여 나아가는 야전형의 지휘관들을 요구한다.

일군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지휘관이 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려단지휘부의 성원들은 하루사업총화가 끝나면 제일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는 갱들에 나가 돌격대원들을 고무추동하고 어려운 모퉁이를 맡아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밤마다 이런 헌신의 길을 계속 걸던 그때 누구도 피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의 증산돌격전에서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 각오만을 지니고있었을뿐이였다. 열백마디의 말보다 더 호소력이 큰 이들의 일본새는 대대들을 집단적혁신창조에로 보다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2갱의 신천군대대와 해주시대대에서는 물길굴의 상부와 벽체콩크리트타입을 남먼저 끝내고 3갱을 지원해나섰다. 그리하여 이 두개의 갱에서 물길굴건설의 마지막공정인 바닥콩크리트치기를 먼저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콩크리트타입실적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쳤던 4갱의 재령군대대와 신원군대대에서는 자동차로 갱안의 버럭을 처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매투와 광차들을 다른 갱들에 보내줌으로써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일군들은 앞선 단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경쟁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하였다. 이것은 대대들의 힘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는데서 의의가 컸다. 옹진군대대와 연안군대대에서는 종전과 같은 조건에서 콩크리트타입실적을 몇배로 올리였다. 정치지도원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앞채를 메고 버럭처리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은률군대대를 비롯하여 이전에는 별로 이름이 없었던 단위들이 앞선 단위를 따라배우고 따라앞서려는 열의밑에 폭풍처럼 내달리였다. 결과 려단의 전반적인 공사속도가 빨라지게 되였다.

증산투쟁, 창조투쟁에서의 성과는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자력갱생의 드세찬 공격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자각을 안고 기관차가 되여 대오를 이끌면서 높은 전투목표를 신심있게 점령해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끝장을 보는 완강한 실천력

평안남도려단에서

평안남도려단에서 취수암거공사 완성!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장에서 전해진 새 소식이다.

이 공사의 완성과정이 시사해주는 문제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은 이미전부터 진행해온 취수암거공사를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결속할 목표를 세웠다. 사실 려단의 로력과 기계수단 특히 자재의 긴장성 등을 놓고볼 때 결코 짧은 기간에 수행할수 있는 목표가 아니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기어이 끝장을 볼것을 결심하였다.

당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우리를 불렀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댈 각오로 나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과 함께 공사작전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우선 로력조직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었다. 려단이 맡은 다른 건설대상은 언제였다. 언제건설을 하자면 가물막이부터 해야 하는데 장마철에는 진행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려단의 력량을 갈라 언제를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을 다같이 해나가던 종전과는 달리 취수암거공사에 모든 대대를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 공사를 완성하면 장마철이 지난 후 언제건설에 력량을 집중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여기서 중시한 문제는 시공을 전문화하는것이였다. 이전에 각이한 대상들을 맡아 건설하는 과정에 일정한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에 익숙된 대대들이 있었다. 여기에 맞게 대대별로 일감을 주면 반복시공을 없애여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었다.

언제나 당의 뜻대로만 일하는 습벽을 붙일 때 사업의 성과를 담보할수 있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려단의 로력을 여러개의 작업조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개 조는 철근가공을, 다른 조들은 그 조립과 콩크리트치기를 비롯한 공정들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였다.

공사의 질보장에 필요한 설비제작을 발기하고 내민 일군들의 일본새도 주목된다.

취수암거가 견고한 구조물이 되게 하자면 콩크리트혼합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 중요했다. 여기에 절실하게 필요한것이 혼합기인데 려단에는 이 설비가 없었다.

일군들은 대담하게 혼합기를 자체로 만들기로 하였다. 증산돌격운동에서의 성과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마련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한 정치부장은 제일 걸린 감속기보장문제를 맡아안고 뛰고뛰여 끝내 해결하였다. 그뒤를 따라 다른 일군들도 헌신성을 발휘한 결과 자체로 혼합기를 만들게 되었다. 내부예비를 탐구하여 많은 강재도 자체로 해결한 이들은 기관차가 되여 대중을 이끌면서 아름찬 취수암거공사를 기어이 완성하였다.

본사기자

굴진방법을 혁신하며 전진 또 전진

평안북도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평안북도려단은 지난 시기 로천공사를 하다가 다른 단위가 진행하던 물길굴공사를 맡게 되었다.

달라진 공사대상을 놓고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난감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물길굴을 뚫어본 경험도 없었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도 매우 부족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맡겨준 임무를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족되는 설비들을 하나하나 갖추어놓으면서 공사과정을 통하여 경험을 부단히 쌓아나갔다.

일군들은 3.4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목표를 세웠다. 높이 세운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방도가 혁신적이여야 한다. 그런데 려단에서는 기존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나니 공사속도를 높일수 없었다.

특히 발파가 문제였다. 굴진과 콩크리트피복공사를 동시에 내미는 조건에서 발파를 설계의 요구대로 진행하지 못하다나니 버럭이 많아지고 콩크리트치기를 할 때 적지 않은 량의 혼합물이 소모되였다. 결국 이것은 로력과 자재랑비였고 공사속도를 높이는데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여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군들은 발파방법을 혁신하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려단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발파방법인 테두리발파방법을 받아들이였다.

이 발파방법은 물길굴단면의 륜곽선을 따라가면서 발파구멍을 뚫고 암질조건에 따라 천공배치와 장약량을 조절하여 암반이 손상되지 않게 발파를 진행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였다.

이것을 도입한 결과 설계의 요구대로 발파가 진행되여 로력과 자재가 랑비되는 현상이 없어지고 공사속도는 종전에 비해 1.5-2배로 빨라지게 되였다.

일군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의 다른 하나를 착암공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찾았다. 그래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다른 공정들도 립체적으로 내밀수 있기때문이였다.

착암공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였다. 이와 함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굴진이자 곧 계획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매주 착암공들을 위한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는것이 그 실례이다.

착암공들은 이 계기를 통하여 앞선 착암방법에 대하여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환하면서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여나갔고 이것은 그대로 공사실적으로 이어졌다.

일군들은 착암공들을 위한 날에 대대별로 음식품평회도 널리 조직하면서 그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여기에 감동된 착암공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자각하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갔다.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고 여기에 과학기술을 안받침한다면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능히 타개해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완공의 그날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나가고있다.

김성진

앞당겨 끝낸 잠관공사

자강도려단에서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자강도려단에서는 몇달동안에 해야 할 잠관공사를 훨씬 앞당겨 해제끼는 비약을 일으켰다. 이 성과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이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리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려단이 맡은 잠관공사는 구조물과 도로를 통과하면서 진행해야 했다.

이 과업을 받은 즉시 먼곳에 있는 현장에 긴급히 이동전개한 대대들에서는 먼저 구조물을 통과하는 잠관공사부터 시작하였다.

굴착기로 땅을 파낸 다음 잠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려단정치부장은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공사가 추진될수록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이 긴장해졌던것이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일이 오래 걸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완성하지 못할수 있었다.

돌격대원들은 9월의 명절을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전례없는 성과, 이것은 기성의 사고방식과 일본새로는 이룩할수 없다.

이것을 명심한 그는 일군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늘 하던 일본새로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발맞춰 나갈수 없다. 기존방식을 따를것이 아니라 당의 뜻대로 주도성, 창발성을 가지고 새것을 창조해야 한다. 일군들부터가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일군들도 흥분되였다. 먼 후날 오늘을 떳떳이 돌이켜볼수 있도록 위훈의 자욱을 크게 새겨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이들의 심장은 높뛰였다.

분발해나선 이들은 혁신적안목으로 공사로정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 과정에 정치부장이 제기한 안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도로의 일정한 구간을 토막내고 거기에 다리를 건설한 다음 그 좌우에 잠관대신 흙물길을 형성하자는 제안이였다.

이렇게 하면 물이 흙물길을 따라 다리밑을 통과하여 계속 흘러가도록 할수 있었다. 결국 100여m구간에서 하기로 되여있던 잠관공사를 그보다 짧은 구간에서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수십t의 강재를 절약하면서 공사기일을 절반이나 앞당길수 있었다.

돌격대원모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본때라고 하면서 공사에 힘있게 떨쳐나 실적을 올리였다.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하루라도 더 빨리, 더 훌륭한 창조물을 일떠세우자는 목소리가 전투장들에서 높이 울리는 속에 공사를 앞당겨 완성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다음 대상공사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낄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글 및 사진 정철훈

한밤중에 쌓은 방파제

얼마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이였다.

불어난 청천강물이 평안남도려단의 취수암거공사장으로 밀려들었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공사를 빨리 끝내는데 큰 지장을 줄수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돌격대원들이 달려나왔다. 그 앞장에는 성천군대대 참모장 리가수동무가 있었다.

그는 기발한 착상과 패기있는 전투지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대가 하루에 200%의 실적을 올리게 하고있는 믿음직한 지휘관이다. 돌격대원들이 깊이 잠든 밤에도 대대의 후방사업을 위해 홀로 부업밭을 가꾸느라 온몸을 땀으로 적시군 하던 그는 공사장에 위험이 닥쳐오자 선참으로 달려나갔다.

돌격대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흙마대로 방파제를 쌓기 시작하였다.

한몸을 아낌없이 바쳐서라도 기어이 공사장을 지켜내려는 각오밑에 분초를 다투며 결사적인 전투를 벌리였다. 돌격대원들은 참모장의 뒤를 따라 흙마대를 쌓고 무너지지 않도록 몸으로 완강하게 버티였다.

그들은 이처럼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정없이 밀려드는 물을 막아냄으로써 당앞에 결의한대로 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전투장의 미더운 혁신자들

자강도려단지휘부 일군인 송학철동무는 대상건설에서 언제나 이런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있다.

려단이 맡은 흙물길건설의 질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보장하자.

그 실현을 위해 공정별로 따져가며 쉬임없이 뛰여다니는 그의 얼굴에서 땀이 마를새 없다.

그는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공사를 빨리 다그치게 하는데서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려단이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 잠관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방도를 찾아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 때였다. 불리한 지대적특성으로 하여 굴착기의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애로가 제기되었다. 이때 그는 려단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실정에 맞는 굴착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평안북도려단 운산군대대 대대장 홍금철동무는 맡은 일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할줄 모르는 소문난 지휘관이다.

대대는 물길굴건설에서 맡겨진 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본보기단위로 불리우고있다. 이 성과속에는 대대장 홍금철동무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무슨 일이나 드세차게 내밀면서 제일 어려운 모퉁이에 남먼저 뛰여들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그의 구령소리는 항상 《나를 따라 앞으로!》이다.

얼마전 려단앞에 물길굴의 상부콩크리트피복공사와 관련한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홍금철동무는 이 과업수행에서 제일 많은 몫을 대대가 맡기로 하였다. 이 대대라고 하여 다른데보다 조건이 더 좋은것은 없다. 하지만 그는 무조건 해낼 각오밑에 실정에 맞는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또한 풍성한 후방사업으로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 대대가 하루계획을 120%로 수행하면서 려단의 전투성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다.

황해남도려단 재령군대대 정치지도원 백광춘동무를 돌격대원들은 한가정의 맏누이처럼 따른다. 그는 말보다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뒤떨어졌던 대대가 앞선 단위로 되게 하였다. 대대의 후방사업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보아주는 그를 가리켜 누구나 진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우리 정치지도원이라고.

언제인가 그는 대대가 맡은 과업수행을 위해 현지를 떠나게 되였다. 그때 돌격대원들은 날자를 세여가면서 정치지도원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처럼 기다리던 그가 돌아오는 날 그들은 멀리까지 마중나가 반겨맞았다.

이처럼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정치일군이 있어 대대의 집단주의위력은 강해지고 다른 대대들이 부러워하는 단위로 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송학철동무

홍금철동무

백광춘동무

집단주의위력이 안아온 공사속도

채취공업성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채취공업성려단에서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물길굴을 관통하는것과 함께 상부콩크리트피복공사까지 해제낄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사실 려단의 실정에서 이것은 높은 목표였다.

우선 로력이 다른 단위보다 긴장한데다가 물길굴을 건설하고있는 지대의 암질이 무르다보니 한치한치 굴뚫기를 하면서 전진해야 하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목표를 수행하자면 공격속도를 훨씬 더 높여야 했다.

일군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난관앞에 주저앉아 우는소리만 하면 언제 가도 목표를 수행할수 없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집단주의위력으로 만난을 뚫고나간다면 결코 못해낼 일이 없다.

이것을 확신한 그들은 피타는 사색을 거듭하는것과 함께 돌격대원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자기 힘을 믿고 분발해나서니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도가 나왔다. 공격속도를 훨씬 더 높이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는 버럭처리를 빨리 하는것이였다.

그래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상부콩크리트피복공사를 따라세울수 있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버럭처리에 자동차를 리용하자는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자동차로 버럭을 처리하자니 걸린 문제가 있었다. 지난 시기 암질조건에 맞는 굴진방법을 도입하다보니 갱바닥과 천정사이 공간이 좁아 자동차가 드나들수 없는것이였다. 일군들은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았다. 갱바닥을 쭉 낮추어 자동차가 갱안으로 드나들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자는것이였다.

려단에서는 즉시 갱바닥을 깊이 파내기 위한 전투를 시작하였다. 적은 로력으로 굴뚫기와 상부콩크리트피복공사를 하면서 이 전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것이 결코 헐치 않았다.

하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새기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난관을 맞받아나갔다.

전투장에 뛰어든 일군들은 사상전의 포문을 열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청일식으로 들이대였다.

동시에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열백마디의 말보다도 감화력이 더 컸다. 돌격대원들은 하루빨리 물길굴을 완공하여 어머니조국에 자기들의 땀이 스민 로력적선물을 드리자고 하면서 맡은 과제를 두몫, 세몫씩 해제꼈다. 앞선 단위가 뒤떨어진 단위를 도와주면서 한마음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 자동차로 버럭처리를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려단에서는 버럭처리는 물론 다른 공정들도 쭉쭉 내밀기 위해 집단주의위력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목표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영학

대화와 압박은 량립될수 없다

얼마전 미국무성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되었을 때 정전협정을 교체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는 전면적으로 유지될것이다고 하면서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체결》을 계속 유지할 립장을 재확인하였다.

미국무장관 폼페오도 국회상원에서 조선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국제적제재가 유지될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언론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한 미국언론은 자국내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드럼프행정부가 조선의 비핵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조선반도정화체제구축과 조선과의 안보통반자판계추진 등 새롭고 창발적인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론조들이 나오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한 정치학교수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자면 신뢰 및 평화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드럼프행정부는 이것을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혼란상태에 있다고 평하였다.

세계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류의 가슴을 부풀게 해주었던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리행은 현재 교착상태에 처하여있다.

무엇때문인가.

미국측이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선 비핵화》주장만을 고집하기때문이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첫 조미고위급회담에서부터 들고나온 이런 그릇된 주장이 미국정가에서는 지금도 주류를 이루고 무성하게 퍼지고있다.

제재압박은 대화와 결코 량립될수 없다.

대화는 신뢰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압박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만 높여줄뿐 대화에 백해무익하다. 오랜 세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해온 조미 두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 공동성명을 통하여 쌍방은 서로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해 적대관계를 종식시킬데 대해 선포하였다.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리해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선의와 아량을 보이며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부핵시험장폐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반면에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있다. 상대방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미국내에서 론의거리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론평에서 지금까지 조선은 미싸일시험발사와 핵시험중지, 북부핵시험장폐기와 미군유골송환, 억류되였던 미국인석방 등 해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정양이 긴장완화에로 나아가려는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별로 한것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이 취한 조치는 군사연습취소뿐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조선은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을것이다고 정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제재압박소동은 아무런 명분도 없다.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들을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우리가 모든 형태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폐기하는 실천적조치들을 위한 조건에서 존재리유를 상실하였다. 많은 나라들과 유엔에서 시효가 지난 대조선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인민은 제재봉쇄속에서도 자주, 자립, 자위로 전진하는 위대한 강국을 일떠세워왔다. 미국의 《제재효과》란 우리의 자강력을 백배해준것뿐이다.

현 미행정부는 력대 행정부들이 반세기이상 제재압박에 매달리다가 쓰디쓴 교훈만을 맛본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주목되는것은 미국의 언론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보다 평화가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한 신문은 행정부는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전략적목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안전과 정제적리익을 지키는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곧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달성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미국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전쟁을 피하게 할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대화와 외교가 최선의 방도로 된다고 전하였다.

미국측은 《선 비핵화, 후 정화협정체결》을 고집하지 말고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때 대통령이 약속하였던 종전선언채택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벌가리아단체 불레찐 발행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가 불레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전조선적인 총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으며 친후 제더미를 헤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된데 대하여, 공화국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불레찐은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 진행되여 북남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조미관계개선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불레찐은 강조하였다.

간또대지진때 학살된 재일동포들에 대한 추도모임 진행

일제가 간또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기화로 무고한 조선사람들에게 죽음과 고통의 재난을 들씌운 때로부터 9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일 도쿄에 있는 간또대진재조선인희생자추모비앞에서 재일동포들이 추도모임을 가지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고덕우 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동포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조우호촉진도쿄의원련락회 부대표를 비롯한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간또대지진당시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의해 학살된 조선인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고덕우위원장이 추도사를 하였다.

그는 간또대진재조선인대학살사건은 피멫친 원한의 력사속에서도 절대로 잊을수 없는 참변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국제법에 금정된 집단학살행위이며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하였다.

그때로부터 9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당국은 역을하게 학살된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조선인대학살만행의 력사적사실마저 은폐하고 외면하고있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이 간또대진재조선인대학살을 비롯한 지난 세기의 피비린 침략전쟁, 식민지정책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적박해와 인권침해를 그만두고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올바른 과거청산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조선인희생자추모비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보안법》철폐를 요구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25일 각계층 시민들이 경기도 수원에서 대회를 열고 《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아직도 《보안법》때문에 량심수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남조선에서 민주와 인권이 있을수 없고 통일운동이 전진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량심수들을 석방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종교인협의회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폐지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지난시기 《보안법》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결코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북남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깃들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악법이 폐지되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파쑈모략사건의 진상 폭로

《MBC》방송이 전한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박정희독재《정권》이 조작한 각종 파쑈모략사건들의 진상이 계속 밝혀지고있는 속에 40여년전 파쑈팡들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웠던 한 재일동포류학생의 무죄가 립증되였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지난 1974년 서울대학교에서 류학을 하던 도중 《북의 지령을 받아 학생운동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쓰고 중앙정보부(당시)에 끌려갔다.

교형리들은 그에게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징역 12년형을 들씌웠다.

이에 대해 폭로하면서 방송은 피해자가 잔악한 고문의 후파로 수십년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있다고 전하였다.

방송은 하지만 그가 교형리들에게 끌려간 날자만은 선명하게 기억하며 치를 떨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는 전세대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유산들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하며 동포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선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잊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며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는 결성이래 지난 20여년간 《유족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꽃봉오리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애국위업을 견지시키고 동포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앞장서왔다.

그 나날에 《한사람의 백걸음보다 백사람의 한걸음》, 《우리가 흘린 땀만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커진다.》, 《대지는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등 청상회특유의 말들이 생겨났다.

최근 청상회가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이 단체의 일군들이 동포사회와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해나가려는 굳은 사명감과 각오를 안고 단결하여 투쟁하였기때문이다. 네의단동들은 희유와 기민, 협박의 방법으로 청상회 성원들을 조직에서 떼내여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그럴수록 청상회에서는 교육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핵심대렬을 강화하고 기층조직들을 튼튼히 다져나갔다. 한편 조국방문과 학교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조직하고 총련지부들에서 진행하는 군중행사들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면서 활동의 폭을 끊임없이 넓혀나갔다.

그 결과 최근년간 엄혹하고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회원수를 1.6배로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청상회 일군들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역으로 자기 단체를 네세워준 어머니조국과 총련조직, 동포사회의 신임과 기대를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력사적서한과 총련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고있다.

이들은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을 자기 활동의 첫자리에 놓고 지난 20여년간에 쌓은 민족교육지원사업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학생인입사업과 학교들에 대한 물질적방조사업을 더욱 통이 크고 참신하게 벌리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당면하여 4.24교육투쟁 70돐 등을 주제로 효고현에서 진행되는 우리 민족토론회를 성공시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자랑찬 승전고가 울려퍼지게 할 결심을 안고 뛰고 또 뛰고있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후가이도본부에는 여러명의 전임일군들이 있다. 그들모두는 이태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9차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남다른 영광을 지니였다. 그들은 뜻 잊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진 총정의 명세대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원수님만을 믿고 애국애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갈 신념으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밀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영예로운 조청일군이라는 긍지, 말아안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해나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그들은 늘 동포청년들속에 들어가 참신한 교양사업을 벌려나가고있다. 사실 일본 총련적의 20%이상을 차지하는 후가이도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사는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동포청년들을 찾아 여러 시간 차를 타고 수백수천리길을 탈려간적이 그 몇번이였던가. 마침내 외진 곳에 사는 동포청년들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나위가 없었다. 동포청년들이 이렇게 멀리에서 찾아주어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감격하여 눈을 슴벅일 때에는 쌓였던 피로가 가뭇없이 가셔지고 조청일군들로서의 보람을 한껏 느끼군 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의 애국애족운동은 보다 활력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이곳 조청일군들은 지난해 일본 삿뽀로에서 진행된 제8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우리 공화국선수단에 대한 대규모적인 응원사업을 통해 지역동포청년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심을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재적에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도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에 발맞추어 이곳 조청일군들은 자기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사상선전사업에 힘을 넣고있는 중국

중국에서 사상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중국당과 정부는 사상선전사업을 강화하는것을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위업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관건적인 문제로 보고있다.

특히 사상을 통일시키고 모든 력량을 묶어세우는것을 사상선전사업에서의 중요고리로 여기고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지난 8월 21일과 22일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전국사상선전사업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습근평총서기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주요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사상선전사업에 대한 당의 방도를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사상선전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므로 민족의 부흥이라는 중임을 걸머질수 있는 시대의 새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사업을 중요한 직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상선전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방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방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해 인급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또한 회의에서 새로운 정세하에서 사상선전사업의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도 밝혔다.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당 제19차대회정신을 지침으로 삼고 민심을 한데 모으며 새 인간을 육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명과 임무를 자각적으로 맡아나서야 한다,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의 질과 수준을 높이며 사상선전사업이 부단히 강화되도록 추동하고 전체 인민이 리상과 신념, 가치리념, 도덕관념에서 하나로 굳게 단합되도록 함으로써 당과 국가사업의 대세를 위해 복무하는데 기어를 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당 제18차대회이래 우리는 사상선전사업을 전반적인 사업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일련의 중대한 정책들을 내놓았으며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두 정목표로 삼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심을 굳게 하고 민심을 한데 모으며 인심을 후하게 하고 마음을 합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번 회의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선전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있다.

전국사상선전사업회의후 중국에서는 사상선전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전국대외선전사업추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습근평주석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당 제19차대회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국사상선전사업회의정신을 철저히 관철집행하여 당과 국가사업의 대세를 위해 복무하는데 기어를 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당 제18차대회이래 우리는 사상선전사업을 전반적인 사업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일련의 중대한 정책들을 내놓았으며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두 정목표로 삼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심을 굳게 하고 민심을 한데 모으며 인심을 후하게 하고 마음을 합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번 회의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선전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있다.

전국사상선전사업회의후 중국에서는 사상선전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전국대외선전사업추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습근평주석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당 제19차대회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한편 정치적자각을 더욱 높이고 사상사업을 보다 심화시킴으로써 불순세력제거를 위한 전문투쟁이 더욱 발전하도록 추동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중국당과 정부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지고있는 사상선전사업은 앞으로 중국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로씨야 수리아정부군에 대한 미국의 공격기도를 폭로

로씨야국방성 공식대변인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리아정부군에 대한 미국의 공격기도를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순항미싸일운반체의 수량을 계속 늘이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수리아의 이들리브도에서 이른바 화학무기를 리용하는 또 한차례의 도발행위가 준비되고있다는것과 련관되여있다고 까밝혔다.

이러한 도발준비는 영국특수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악당들을 내세워 마치도 수리아정부군이 이들리브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듯이 사실을 꾸며내려는 미국의 기도를 또다시 증명해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최고지도자 군대를 강화할데 대해 강조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2일 이란군 고위지휘관들과의 담화석상에서 군대강화에 힘을 넣을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군대가 적들의 있을수 있는 공격에 대처하여 경계근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령토를 수호하는데서 대공방위를 맡은 부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명하였다.

팔레스티나외무성 미국의 립장을 비난

팔레스티나외무성이 3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문제에 대한 미국의 립장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날 미국의 중동담당특사가 꾸드스는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미국에 대한 팔레스티나의 태도가 실망스럽고 유해로운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이스라엘신문에 낸데 대해 지적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비호하는 미국의 편견적인 립장의 반영이라고 까밝혔다.

성명은 그러한 처사가 력사적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랍 및 이슬람교세계에 대한 루리깊은 경멸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에서 복구사업 활발

수리아에서 복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정부는 새 학년도를 맞으며 해방지역들에서 교육시설들에 대한 복구에 힘을 넣었으며 그 결과 약 5 000개의 학교들이 개건되여 문을 열었다.

사나통신은 2일부터 새 학년도가 시작되여 현재 1만 4 000개의 학교들에서 400만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으며 약 30만명의 교원들이 교수사업에 참가하고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정부는 테로분자들로부터 탈환한 디마스끄의 주변지역들에서 140개의 치료센터들을 복구하고 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보장해주어 주민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교외의 여러 지역에서 하부구조복구가 완전히 끝나 수천명의 피난민들이 되돌아오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가 날로 커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중요요인으로 되고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한번 쌓인 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50년이상 걸리기때문에 이산화탄소방출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는 한 그 량은 계속 증가된다고 한다.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현재의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지 않는 경우 서유럽과 뉴질랜드의 기후가 지금으로부터 수천만년전의 상태로 되돌아갈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연구사들은 지금처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함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최근 서유럽과 기타 지역들을 강타하고있는 열파가 21세기말에 가서 례사로운 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으로부터 여러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아랍추장국련방의 두바이추장국에서는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일수 있는 태양열발전소건설을 추진하고있다. 2020년에 3단계공사가 끝나게 되면 해마다 탄산가스방출량을 27만여t이나 줄일수 있다고 한다.

뜌니지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방출량을 41% 줄일것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곳곳에 10개의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에티오피아정부는 최근 바히르다르를 비롯한 6개의 도시들에서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나무심기와 오수를 리용한 비료생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엄격한 검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극력 줄이고있다.

일부 유럽나라들에서 이산화탄소회수리용방법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는 속에 스위스의 쮸리히교외에 있는 남새온실들에서는 이산화탄소농도를 높임으로써 빛합성을 촉진하고있으며 주변의 오물처리장에는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에서 회수리용하는 시설이 건설되였다.

이슬란드에 있는 지열발전소에서도 부지안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고 발전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뚫은 관으로 지하 800m깊이에 있는 현무암에 주입하여 돌로 《번화》시키고있다.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영원히 안전하게 저장할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막과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갈녹제 추출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이산화탄소를 액체알콜연료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한편 그것을 인간생활과 사회경제발전에 활용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아시아나라들에서 폭우와 큰물로 피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물이 들이닥쳐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인디아의 케랄라, 아쌈을 비롯한 10개 주에서 장마철기간 큰물로 1 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케랄라주에서는 약 500명의 사망자와 약 550만명의 리재민이 발생하고 5만 7 000여ha의 농경지에 심은 록식이 못쓰게 되였으며 아쌈주와 서부벵갈주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였다.

2일 하루동안에만도 우따르쁘라데쉬주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났다.

웨남의 북부와 중부지역에서도 8월말부터 내린 폭우에 의한 큰물과 산사태로 3일현재 사망자수가 13명으로 늘어났으며 약 5만 6 880마리의 집짐승이 죽었다.

한편 타이의 창라이, 파야오 등 18개 주에서는 1일현재 16만 2 7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다.

만마에서는 지난 2개월동안 큰물이 휩쓸어 31명이 사망하고 많은 살림집과 다리, 도로가 파괴되였으며 아직까지 6만 2 430여명이 한지에서 생활하고있다.

해당 나라들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이스라엘군 팔레스티나인탄압에 광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3일 이스라엘군은 베들레헴시의 한 마을에 쳐들어가 4채의 팔레스티나인살림집을 강제로 허물어버리는 폭거를 감행하였으며 이에 항거하는 현지주민들에게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마구 쏘아 1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에 앞서 1일 헤브론시에서는 팔레스티나인청년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였다.

미국에서 총격사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버나지노시에 있는 한 유흥장에서 2일 총격전이 벌어져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경찰이 이날 도망친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작전을 벌렸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7-181141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륜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로동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